



경초장학재단, 전주대에 장학금 전달

(재)경초장학재단은 지난 22일 대학본과 접견실에서 전주 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초장학재단은 지난해 5,000만원의 장학금 기부물 약정, 남은 1,200만원의 장학금을 재학생 8명에게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경초장학재단 김택수 이사장, 김인수 이사, 이직현 사무국장, 박진배 총장, 신숙경 학생취업처장, 이윤노 학생지원실장, 하현일 대외협력홍보실장, 장학금 수여 학생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김정연 학생(영화방송학과 3년)은 "이번에 받은 장학금으로 제 꿈을 위해 투자하겠다"며 "잊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김혜빈 학생(IT금융학과)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택수 이사장은 "경초장학재단이 나눔의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기업대표 4명, 전주교대 발전기금 기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2일 4명의 기업대표로부터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총장실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비타민GMP 유진숙 대표, 울드브릭컴퍼니 장미정 대표, 소이랩 유요한 대표, 아리울수산 박금옥 대표가 참석해 각각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각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대학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인권 집합교육 진행

남원시가 22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3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발생하기 쉬운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를 토대로 노인 인권의 개념과 환경변화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닌 도움이며, 노인학대 예방 슬로건처럼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학대와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MJ라이온스 클럽, 학교 밖 청소년에 물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9일 김제 중앙 MJ 라이온스 클럽(회장 이용식)이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문구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제 중앙 MJ 라이온스 클럽은 목거노인 및 조손가정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지난해 시와 교원동에 기부보일러, 난방유를 기부하는 등 평소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문구용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자원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이용식 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은 "평소 청소년복지에 관심을 가져주고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문구품을 전달한 김제 중앙 MJ 라이온스 클럽의 소중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제=곽태 기자

“청년들 자립 지지체계 강화에 노력하자”

전북은행, 자립준비청년들의 특별한 기회 제공 위한 응원금 기탁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이 전북특별자치도에 기탁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은행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후원금으로 지난해 보다 1억원 증액한 3억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후원금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장원호 노조위원장, 오현권 부행장, 정영민 전북은행 도청지점장, 전숙영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지난해 지원 받은 자립준비청년들도 함께 참여해 "평소 경제적으로 부담됐던 주거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아 생활·건강에 안정을 얻었고, 자격증 취득 및 학원수강으로 자기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2억원을 기탁해 22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억원으로 증액 기

탁해, 300여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탁금은 300명의 청년들에게 건강검진·의료비, 주거비,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문화행사, 응급키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별도로 취업준비 자립준비청년 30명을 선발하고 취약계층 이동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학습 멘토링에 참여해 재능을 기부한 이들 청년에게 총 5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기부가 기부로 이어지는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병행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나와 홀로살기를 준비하는 청년으로, 국내 자립준비청년은 500여명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탁금에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의정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일조한 인물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기리는 상으로, 국회출입기자클럽과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이 주최하고, 데일리뉴스 (사)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 식품의약신문, (주)화출입기자연합회가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특히 제대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과 화합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또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초고령사회인 장수군에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광훈 의원은 "군민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다"라면서 "더 노력하는 뜻으로 앞으로 최선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동충동, '함께하는 내 친구 초록이' 사업 개시

남원시 동충동(동장 김차남)은 지난 22일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심는 식집사(식물+집사의 합성어) 양성 프로그램을 일명 '함께하는 내 친구 초록이' 사업을 개시했다. 식집사는 반려동물을 대하듯 식물에 사랑을 쏟는 이들을 부르는 신조어이며, 이번 특화사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동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한 반려식물 가꾸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손쉬운 흙가드닝을 통해 반려식물과 정서적 교감을 통한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은 물론, 공기정화 기능을 더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5회로 구성되며, 지난 22일 1회차 시간에는 원예치료사를 초빙해 2시간에 걸쳐 반려식물 제공 및 키우는 방법 안내, 교유 이음 짓기 등 다양한 원예활동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편 김차남 동충동장은 "반려식물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희 정읍 시기동 동장, 현장 소통 위한 경로당 순회 방문

정읍시 시기동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관내 경로당 8개소를 순회 방문하며 어르신들에게 애로사항을 듣고 보조금 관리 회계교육을 하는 등 소통 행정을 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 통장과 특별생난방비 통장, 마을 회비 등 자체 사업비 통장을 구분해 사용하고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 투명하고 집행이 이뤄질 것을 강조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는 등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경로당 회계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희 동장은 "이번 순회방문을 통해 경로당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공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대, 산학협력력 활동 우수학과 시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LINC 3.0 사업 산학협력력 참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지난 22일 참여 우수학과를 대상으로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LINC 3.0 사업과 관련해 학생 참여율과 교수 참여율이 우수한 상위 20개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 참여율은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 교육 부문에서, 교수 참여율은 기술개발과 지도, 특히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력 활동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활동이 우수한 20개 학과를 대상으로 수퍼스타상(10개 학과)과 스타상(10개 학과)을 시상했다. 시상에는 전체 46개 학과 중에 한식조리학과가 최고의 마일리지 점수(1,824점)로 수퍼스타상을 수상했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캡스톤 참여율 1위, 교수 산학협력 활동 참여율에서 최고점수로 전체 학과 중 1위를 차지했다.



남원 동충동, 경로당 보조금 회계 교육

남원시 동충동(동장 소선자)은 22일 관내 경로당 22개소 노인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조금 항목별 집행기준과 정산방법, 정산 시 유의사항,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문답을 통해 운영비 집행 시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우 동충동 부회장은 "매년 보조금 회계 교육을 받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 사용에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경로당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 종별체조선수권대회 남·여 메달 획득

전북체육중학교 황서현(여, 3년) 선수와 최지훈(남, 3년) 선수가 지난 19일 제79회 전국 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황서현 선수는 개인종합 1위, 평균 1위, 이단행복 2위, 마루운동 2위를 차지했다. 마루운동 실수로 금메달을 아쉽게 놓친 황 서수는 제8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관왕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지훈 선수는 링 1위, 안마 2위, 평행봉 2위를 차지하면서 제8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전경기로 치러지는 제8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초전인 만큼 상대팀 전력분석으로 분주했다. 김상동 교장은 "우리 선수들이 민간의 준비로 제8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빛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서현 선수 최지훈 선수

/정은성 기자



남원 동충동, 소방서 연계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시 동충동(동장 소선자)은 남원소방서와 연계해 통장협의회 구성원 4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6대 핵심 과제 중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동충동에서의 화재 및 기타 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이뤄졌다. 교육에서는 남원소방서 대응예방과 대원이 직접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각종 재난상황을 가정된 현장 참여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화재 감지기 중요성 등 시설 설비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동충동 동민들에게 안전한 동충동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술가솔밭갈비 김제 김성원 대표, 사랑의 식사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2일 술가솔밭갈비(대표 김성원)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정성이 가득 담긴 갈비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사 지원 행사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독거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술가솔밭갈비 대표 및 직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갈비탕을 대접해 평소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배를 든든하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김성원 대표는 "평소 김제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던 중 우리 가게에서 만드는 맛있는 음식을 혼자 식사를 챙겨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대접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